즉시 배포용: 2022년 12월 2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카를로스법 수립 법안에 서명

법안 S.621B/A.4947B에 따라 고용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에 대한 형사적 기업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형법 개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카를로스 법(Carlos' Law) 시행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S.621B/A.4947B)에 따라 고용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에 대한 형사적 기업 책임을 묻고 이를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처벌하여 최대 500,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뉴욕주 형법(New York State Penal Law)을 개정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는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번 법안은 안전 프로토콜의 또 하나의 책임을 더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이며 어렵고 위험한 일을 맡은 사람을 위해 중요한 보호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발휘해주신 법안 지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Carlos의 가족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카를로스 법(S.621B/A.4947B)에 따라 뉴욕의 건설 공사장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비극과 피할 수 있었던 부상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기업의 무관심이나 방기로 인해 또는 의도적으로 근로자가 근로 중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 부상을 입는 경우, 이러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형사적으로 기업이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22세의 건설 노동자로 2015년 뉴욕시 공사장에서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Carlos Moncayo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James Sander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5년 퀸즈 주민이자 에콰도르인 22세 청년 Carlos Moncayo가 고용주의 부주의로 작업장에서 사망했습니다. Moncayo 씨 근무지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가 있었으나, 고용주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사건에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의 고용주는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관리자들이 유사하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뉴욕주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비롯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카를로스 법은 마침내 고용주가 책임을

다하고 미래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향후 근로자의 부상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합니다."

Rodneyse Bichotte Hermely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지한 법안을 위해 수 년간 노력한 끝에, Hochul가 마침내 카를로스 법에 서명하여 건축업자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아 이들이 근로자, 특히 제 지역구의 이민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도록 보장하게 되어 안심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저는 마침내 고용주의 작업장 훈련 및 안전 보장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카를로스 법이 이제 발효되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작업장 부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개정 법안은 또한 하청업자, 일용직 근로자, 기타 이러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근로자 또한 '고용인'에 포함하여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주의 책임을 늘립니다. 규정 위반을 방지하도록 벌금을 제정했지만, 돈으로 생명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Roberta Reardon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DO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를 세운 근로자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및 보건 조건을 충족하는 작업 환경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정의한 계약업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카를로스 법을 제정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상 기업들이 DOL의 무료 현장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자를 위해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Mike Hellstrom 루이나 이스턴 지역(LIUNA Eastern Region)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법에 서명해주신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5~6일마다 뉴욕의 건설 노동자 한 명이 작업장에서 사망합니다. 이번 법안은 카를로스의 고용주가 부담했던 것보다 최대 50배로 벌금을 강화하여, 가장 강력한 예방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의회와 Hochul 주지사는 건설 작업장 근로자 사망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는 목표를 향해 큰 한 걸음을 내디었습니다. 뉴욕의 근로자를 지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메이슨 텐더스 지구 위원회(Mason Tenders District Council)의 비즈니스 매니저인 Mike Prohask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은 본질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량 행위자는 작업장에서 근로자를 착취할 방법을 찾습니다. 피해자 다섯 명 중 약 네 명이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민자입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오늘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근로자를 위해 나서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